

[무형문화유산 순방]

지역특색 품은 만족전지예술 생생한 예술작품으로 승화

— 전국 향촌 장인이 며 명사인 만족전지 대표적 전승인 한쌍

지난 6월 8일 오전,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을 맞이하여 펼쳐진 연변 무형문화유산집중전시 행사에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만족전지가 선보인 가운데 주급 만족전지 대표적 전승인인 한쌍(韓雙)이 전시부스 앞에 나서서 만족전지를 홍보하느라 분망히 돌아치고 있었다.

이번 연변무형문화유산집중전시 행사에 한쌍은 여러 점의 만족전지 창작품들을 가지고 왔다. 그중에서도 본 지역 특색이 다분한 훈춘시 방천의 풍호각이며 훈춘시 동북호랑이와 동북표범의 고향임을 자랑하는 범과 표범이 그려져있는 전지예술 등 지역특색이 다분한 전지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전지예술이 품고 있는 지역특색 요소들은 살아움직이는 듯 생생한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만족전지의 대표적인 전승인으로서 저는 어깨에 놓인 책임과 사명이 큰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예술인 만족의 민간전지를 세세대대로 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한쌍은 자부심에 넘쳐서 말했다.

만족의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족전지는 만족민간의 특정한 문화 배경과 생활환경에 따라 자신의 특정한 언어와 풍격을 지닌 문화예술인바 장백산 일대의 찬란하고 중후한 문화를 담은 민간 예술로도 불리고 있다. 수백년의 발전을 거쳐 만족의 민간전지는 이미 국내외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예술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농업농촌부와 교육부 등 부문들에서는 공동히 제 1진 향촌 장인명사 인정 명단을 연구, 확정했는데 전국적으로 273명이 선정된 가운데 길림성에서 9명, 연변에서는 유일하



▲ 만족전지 대표적 전승인 한쌍



▲ 한쌍이 창작한 범과 표범이 그려져있는 만족전지예술

게 훈춘시의 한쌍이 전지조각예술 장인류에 입선되었다.

한쌍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만족전지 제 3대 대표적 전승인이다. 만족인 한쌍은 1979년도에 훈춘에서 나서자란 훈춘 토배기인데 1999년부터 양포만족향소학교에서 미술교원으로 사업하고 있다. 25년간 한쌍은 매주 교수과정과 미술수업을 통해 학생들

에게 만족전지를 전수해왔다. 성급 골간교원인 한쌍은 늘 전교 청년교원들을 조직하여 만족전지를 학습하고 청년교원과 학생들을 지도하여 홍색관광, 고향의 아름다움, 민족단결 주제의 전지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함으로써 만족전지를 교정의 특색수업으로 삼았다. 그의 적극적인 인솔하에 지난 2017년도에 양포만족향소학교

는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만족전지항목훈련기지로 되었다.

“너 많은 학생들이 만족전지작품을 리해하고 좋아하며 또한 창작할 수 있도록 최근 몇년동안 훈춘시제 4중학교, 훈춘시제 1 실험소학교 등 10개 형제학교들에서 50여개의 전지실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쌍은 소개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한쌍은 또 정부 관련 부문에서 조직한 공익부속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류제너성, 빈곤호, 장애인 등을 위해 만족전통전지 훈련지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지 관광자원에 의탁하여 민족문화, 당창건활동 등을 둘러싸고 작품전을 개최하여 당사와 애국주의정신을 둘러싸고 작품을 창작하려는 훈춘시 전지애호가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는데 훈춘시 연화활동에서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형성하였다.

훈춘시만족특색전지협회 회장이기도 한 한쌍은 “전지협회의 오래된 전지예인들은 대부분 퇴직한 종업원들이며 모두들 평소 여가 시간을 리용하여 전지 창작을 한다.”고 소개했다. 창작 제제는 만족의 민속과 생태 등을 반영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퇴직 종업원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민족문화를 고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광지에서 정교하고 가치 있는 전지창작품들을 판매하기도 하여 일정한 경제효익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타산에 대해 한쌍은 “나는 평범한 농촌 미술교원이자 진지한 문화전승자”라고 하면서 “금후 일터에 립각하여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우수한 민족문화를 대대로 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쌍은 농촌 진흥의 길에서 향촌 문화자원에 의거하여 전지공예를 산업진흥, 생태진흥, 문화진흥, 민속품도인정을 추진하는 것과 결부시켜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더욱 널리 발산하는 데 자신의 저그마한 힘이나마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근 김파 기자

| 전망대 |

원정에 강한 광주팀 VS 홈장에 강한 연변팀

6월 16일 15:00 시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 중심체육장에서 광주팀과 2024 시즌 제 1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현재 6승 3무 4패로 21점을 기록한 광주팀은 갑급리그 16개 팀중 평균년령이 가장 어린 팀으로 충격력이 강하고 전술 변화가 다양한 팀으로 지목받고 있다. 거기에 아래거리야(22세, 9번, 콜롬비아, 7골), 베니야로씨(24세, 28번, 콜롬비아, 1골), 싸다우스카스(27세, 8번, 리트바, 1골)와 같은 용병들도 젊은 축이고 오준걸, 아뿌뚜와, 아이사장, 후예, 료금도 등 주력선수들도 22~24세라는 점이다. 나머지는 모두 U21 선수들인데 16세인 오준양이나 17세인 장지웅과 같은 선수들도 이번 시즌에 3경기를 출전하였다는 것은 구락부와 감독진이 후비력 양성에 각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성적도 무시할 수 없다. 5월분 4경기중 대련영박을 원정에서 1:0으로 제압하고 청도홍사와 1:1로 비긴 후 다시 원정에서 광서평과하료를 4:3으로 제압했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다. 여기서 대련영박과 광서평과하료는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팀들이고 다 원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2일 원정에서 강서려산을 5:2로 제압한 광주팀이 홈장에 돌아와 약팀으로 인정받는 료녕철인에 1:3으로 패하였는데 올해 광주팀은 홈장 성적이 썩 좋지 않다. 홈장에서 석가장공부, 상해정화룡, 무석오

구를 이기고 허룽강빙성, 운남육곤, 료녕철인에 패한 것이다.

반면에 연변팀은 홈장에 강하고 원정에 약하다. 원정에서 1승 2무 4패를 기록하고 홈장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였다. 선수들도 연령 구조가 다양한 데다가 부상으로 주전들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 현재 연변팀의 급선무는 선수들의 신로 교체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정에 강한 광주팀을 맞아 자웅을 겨루게 된 것이다.

광주팀의 감독진은 에스빠냐적 감독들로 채워졌는데 쌀바도 감독은 지난해부터 33경기를 지휘한, 팀에 익숙한 감독이다. 그러나 연변팀의 이반 감독은 연변팀의 사령탑을 잡은 지 불과 두주일 밖에 안되어 전반 연변팀에 대한 료해가 불충분한 형편이다. 비록 지난 대 청도홍사전에서 다양한 전술 변화로 축구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앞으로 연변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쌀바도 감독과 이반 감독이 모두 에스빠냐적 감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대의 축구를 읽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거기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는가 못하는가가 이번 광주팀과의 경기 판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연변팀 상하가 합심하여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끈질긴 투지와 다양한 전술 변화가 있는 몇몇어진 경기로 홈장패가 아닌 귀중한 승점을 홈장 팬들에게 선물하기를 희망한다.

/ 김태국기자



▲ 청도홍사팀과의 경기 한 장면

아태지성 전국청소년축구초청경기서 연길동성축구구락부팀 우승

2024 중국-아태지성(亞泰之星)솔빙합숙집 전국청소년축구초청경기(장춘역)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장춘올림픽체육중심과 장춘파크운동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경기는 장춘시 축구사업 발전을 추동하고 청소년 축구 수준을 제고하며 장춘시 청소년 훈련체계 건설을 완벽히 하고 축구 발전 중점도시 건설과 체육강시 건설에 조력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중국-아태지성에서 주최하고 아태지성축구구락부와 장춘올림픽중심에서 주관한 이번 초청경기에는 2012—2013년령조(8인조) 10개 팀과 2015—2016년령조(8인조) 8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렸다.

경기는 전후반 각각 30분씩 설정되었고 정규 시간내에 두 팀이 무승부가 되면 직접 승부차기를 진행해

승자는 2점을, 패자는 1점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8개 팀의 사흘간의 치열한 각축전 끝에 연길동성축

구구락부팀이 2015—2016년령조 우승 트로피와 함께 전태호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장지현선수가 최우수 골키퍼상을, 권영학 지도가 최우수 코치상을 받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권영학 지도는 “단오 연휴 기간 휴식과 맞바꾼 경기 일정이었지만 이러한 경기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소질과 자신감이 한결 제고되었으며 더우기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어 더없이 보귀한 기회였다.”며 “이후에도 아이들의 신체 단련과 훈련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따내 연변 청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화기자

대학 지원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키워드

2024년 대학입시가 막을 내렸고 수험생들은 대학교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순차적 합격 통제점수 선언이란 무엇일까? 대학 등급조정 점수 선언이란 무엇일까? 평형지원과 순차적 지원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 지원 신청에 관한 해당 키워드를 알아보자.

◆ 순차적 합격 통제점수선

순차적 합격 통제점수선이란 성통제선 혹은 차수선(批次线)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성급 학생모집기구에서 그해 전 성 수험생 대학입시 성적과 학생모집계획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순서에 따라 수험생의 최저점수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모집대학은 본 대학이 소재한 차수합격 통제선 이상에서만 수험생을 모집할 수 있고 대학입시 성적이 배치선상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수험생(일반적으로 ‘상위수험생’이라고 함)의 서류만 학교에 송부될 수 있고 대학에서 모집할 수 있다.

◆ 대학 서류인출 점수선

대학 서류인출 점수선은 또 서류송부 점수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급 학생모집시험기구에서 학생모집학교를 단위로 모집기구의 동일한 과목 모집계획수의 일정한 비례(례를 들어 105% 혹은 120%)에 따라 제 1지원 제출과정(평형지원의 제 1라운드 정식 등록)중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록

기관의 가장 낮은 서류인출 점수이다.

성교육시험원은 일반대학의 본성에서의 모집계획과 서류송부 비율에 따라 송부해야 할 송부수를 계산하고 해당 규칙에 따라 송부하며 대학에 송부한 응시자 서류의 점수선이 바로 학교의 서류인출 점수선이다.

◆ 평형지원

평형지원이란 학생모집의 동일 료형, 동일 등록 등급에서 상대적인 평형관계를 가진 지원을 말한다. 평형지원의 서류송부 원칙은 점수 우선, 지원 준수, 1라운드 송부로 최고점수 수험생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검색 및 송부하고 한 수험생을 검색할 차례가 되면 이 수험생이 제출한 지원 순서에 따라 검색한다. 따라서 송부 조건을 충족하고 대학에 계획 명액이 있을 때 송부된다.

◆ 순차적 지원

순차적 지원은 동일한 모집 순서에 설치한 여러개 학교 지원 선후 순서를 말하는데 례하며 제 1지원, 제 2지원 등이 있다. 매 지원에는 하나의 학교만 포함된다. 합격서류송부는 ‘지원 우선,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서’의 규칙에 따르며 제 1지원 모집이 끝난 후 만약 대학 학생모집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완료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제 2지원 모집을 실시한다. 따라서 수험생의 제 1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인민넷

2024년 연길시 제 1회 축구협회컵 경기(사회조) 원만히 마무리



지난 5월 12일에 개막한 2024년 연길시 제 1회 축구협회컵 경기(사회조)가 6월 9일 마무리된 가운데 결승전에서 연길시 풍천포치전문점 축구팀이 2대 1로 추풍축구팀을 전승하고 우승을 따냈다.

이번 경기는 연길시청소년아마추어체육운동학교 축구장에서 열렸으며 총 16개 팀의 400여명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매 경기마다 연길시 각

아마추어축구구락부, 협회, 기업, 사업단위 등의 축구애호가들이 현장에서 구경하면서 응원하였다. 매 팀의 선수들은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뛰여다니며 역경 속에서 분투하고 승리 속에서 영광을 공유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축구의 단합된 매력과 경기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연길시축구협회 운영존 회장은 “경

기 플랫폼을 마련하여 연길시의 광범한 축구애호가들에게 자신을 선보이고 축구의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연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향후 이 경기를 상시적인 대중 경기로 자주 진행하여 국민 축구 운동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광범위한 대중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길뉴스넷